

2019년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편성사유

- 2018년 촉탁계약직의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2018.12.14.자로 체결함에 따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근무하는 촉탁직 임금 상승 및 소급액 지급에 따른 부족분 예산을 확보하고 국고보조금의 반환을 통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.

3. 추가경정예산안 규모

가. 개요

- 세입 : 없음
- 세출 : 기정예산 147억 9,600만원 대비 0.3%인 4,700만원을 증액함.

<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안	기정예산	증 감	증감률
서울역사박물관	14,842,643	14,796,121	46,522	0.3%

나. 세부내역

-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출 4,700만원의 세부내역은 <역사가옥 전시관 운영>과 <박물관 유지·운영>의 축탁직 보수 4,100만원 증액과 <국고보조금 반환> 550만원 편성에 따른 것임.

<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>

(단위 : 천원)

세부사업명	추경예산안	기정예산	증 감	증감률
역사가옥 전시관 운영	261,755	251,588	10,167	4%
박물관 유지·운영	2,330,246	2,299,391	30,855	1.3%
국고보조금 반환	5,500	-	5,500	-
계	2,597,501	2,550,979	46,522	

4. 검토의견

- 서울역사박물관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48억 4,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7억 9천6백만원의 0.3%인 4,700만원이 증액된 것임.

이는 세부사업 <역사가옥 전시관 운영>과 <박물관 유지·운영>의 축탁직 보수 4,100만원 증액과 <국고보조금 반환> 550만원

편성에 따른 것임.

- 세부사업 <역사가옥 전시관 운영>은 축탁직 근로자 3명, <박물관 유지·운영>은 축탁직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상승 및 소급액 지급에 따른 부족분 반영을 위해 4,100만원을 편성한 것임.

<추경예산 산출내역>

세부사업(예산과목)	산출내역
역사가옥 전시관 운영(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)	○축탁직(3명) 보수 = 10,167천원 - 2018년 임금 인상분 소급 지급액 = 5,015천원 - 신설 수당 지급액 = 1,140천원 - 2019년 소급 지급액 = 4,012천원
박물관 유지·운영(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)	○축탁직(9명) 보수 = 30,855천원 - 2018년 임금 인상분 소급 지급액 = 14,378천원 - 신설 수당 지급액 = 3,420천원 - 2019년 소급 지급액 = 13,057천원

- 2018년 축탁계약직의 임금협약('18.12.14.) 결과 급여가 당초 전망했던 4%보다 큰 폭으로 인상되어 호봉에 따라 6.6%~9.5% 인상되었고 각종 수당신설(신설위생수당 : 월 3만원, 대민수당 : 월 3만원)과 산업안전교육여비(2만원) 지급 등이 추가된 것임.
- 타 기관에 비해 축탁직 전환 인원(총12명)이 많고 예상보다 대폭으로 임금이 인상되어 상기 임금인상분에 대하여 본 예산에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.
- 고령자 적합업무(경비, 청소)는 예외적으로 정년(만 60세) 이후 자체 심사를 거쳐 축탁직으로 재고용(신규채용)하여 만 65세(12.31)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2019년 축탁직 재고용 운영방안¹⁾에

1) (노동정책담당관-13215, '18.12.19)_첨부자료 별첨

따라, 공무원 중 축적된 전환대상자에 대해 자체심사를 거쳐 신규 채용계약 체결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정년이 지난 고령의 기간제 노동자로 60대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판단됨.

- 전문가·사무직 등 고숙련 직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많은 장년층들은 은퇴 이후에도 보람 있는 노후를 위해 전문성을 살려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나 대다수 재취업 일자리는 장년층의 전문성과 무관한 단순노무직에 분포되어 있는 실정임.²⁾
 -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로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전망되는 만큼 고령화 가속에 따른 고령노동자에 대한 고용 안정을 보장할 법적 제도나 사회 인식 모두 현실에 못 미치고 있는 바 향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 -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2018년과 2019년(4월 기준)에 각각 32.0%, 33.3%로 전체 고용률 각각 60.9%, 60.8%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바, 고령노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그에 걸맞은 안정적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- 〈국고보조금 반환〉 550만원은 2018년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중 서울역사박물관이 수행한 ‘경희궁 배수로 및 계단정비’와 ‘승정전 계측관리’ 사업의 집행잔액(427만원) 및 이자(123만원)를 반환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2) 장년층 재취업자 중 임시·일용직 44.3%이고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26.1%임. (고용노동부 자료 참조)

2019년 공무원에 대한 촉탁직 전환 계획

2019년 고령자 적합업무(청소, 경비, 주차관리, 운전)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을 추진하고자 함

I

운영 근거

- 2017년 공무원 전환계획(행정1부시장방침 제347호, '16.11.25)
 -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원 전환 및 촉탁계약직 재고용
- 2018년 촉탁직 재고용 계획('17.12.28.)

II

2018년 추진현황

- '18.1.1자 촉탁직 54명 재고용
 - '18년 촉탁직 신규 인원 : 54명(청소 42명, 경비 9명, 주차 1명, 운전 2명)
- '18년 10월 기준 촉탁직 총 정원 : 254명
 - 청소 193명, 경비 43명, 주차 4명, 운전 14명

III

운영 계획

1. 공무원 및 촉탁직 총원관리

- 공무원 및 촉탁직 퇴직 등 결원시 공무직을 채용하며, 기관별 공무원 + 촉탁직 인원을 합산하여 총원 한도 관리<붙임1>

- 공무직 정원은 축탁직 퇴직에 따라 변동하고, 반대로 축탁직 정원은 공무직 퇴직에 따라 변동함
 - 축탁직 총정원은 파견용역직의 축탁직 전환자 50명(별도의 정원 산정) 포함
- 공무직 총원 조정
 - 공무직의 경우, 직무분석을 통한 정원 적정성 검토에 따라 총원 조정

2. 축탁직 재고용

- 공무직 퇴직자 가운데 고령자 적합업무(청소, 경비, 주차관리, 운전)에 해당되는 퇴직자는 예외적으로 정년(만60세) 이후 축탁직으로 재고용(신규채용)되어 만65세까지 근무 가능
- '19.1.1자 축탁직 재고용
 - '19년 축탁직 재고용 인원 : 54명(청소 46명, 경비 6명, 주차 1명, 운전 1명)
- 축탁직 재고용은 부서별 내부 심사를 거쳐 신규 채용계약 체결

3. 파견용역 근무자의 축탁직 전환

- 2019년 1월 1일자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결정자 가운데 고령자적합업무에 해당되며 만 60세 이상인 자 축탁직으로 전환

※'19년 축탁직 총 정원 : 300명(청소 225명, 경비 60명, 주차 4명, 운전 11명)

IV

행정사항

공통사항

- **공무직, 촉탁직 총원관리 준수**
 - 정원채정 사전협의, 정원채정 요구 및 승인 등 인력 변동시 협의
 - 협의사항 미이행시(정원채정요구서, 직무분석표 미제출 등) 정원 반영 불가
- **촉탁직 재고용 부서**
 - 촉탁직 재고용 결과 보고서<붙임 2>를 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
(~`19.1.15)

부서별 업무 분장

- 공무직 정원 채정·승인, 관리규정 개정 : 조직담당관
- 촉탁직 관리 : 노동정책담당관
- 촉탁직 재고용 결과보고서 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 : 사용부서